



한국여자양궁대표팀의 윤옥희·기보배·주현정(왼쪽부터)이 21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아처리 레인지에서 열린 중국과의 단체전 결승 슛오프 2차 대결에서 연속으로 10점을 명중시키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 연장 퍼펙트... 역시 신궁의 나라

## 순간의 승부 펜싱 5번째 금메달

### 광주대표 주현정·기보배 단체전 금빛 호흡... AG 4연패 명중

광주를 대표하는 여궁수 주현정과 기보배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를 쏘아올렸다. 한국 여자 양궁대표팀이 21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아처리 레인지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과 두 차례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광주체육고 출신의 주현정(28·현대 모비스)과 광주여대를 졸업한 신예 기보배(22·광주시청)가 윤옥희(25·예천군청)와 금빛 호흡을 맞추며 단체전 4연패의 주역이 됐다. 인도와의 준결승에서 슛오프까지 치르는 접전을 벌였던 한국은 중국과의 결승에서도 승마하는 힘겨루기를 했다. 3연드에서 주현정이 7점을 쏘면서 경기 흐름이 중국쪽으로 넘어가는 듯했다. 중국의 천밍과 장윤위, 주산산이 10점, 9점, 9점

을 기록하면서 점수는 165-168, 3점차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4연드 첫발에서 주현정이 10점을 명중시키며 실수를 만회하는 등 한국이 10점, 9점, 10점을 기록하며 추격을 계속했다. 한국의 거센 반격에 페이스가 흔들린 중국은 9점, 8점, 9점을 쏘면서 194-194 동점이 됐다. 4연드 마지막 대결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220-22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슛오프에 들어갔다. 한국이 9점, 9점, 10점을 쏘았고 중국은 10점, 9점, 9점으로 응수하면서 다시 한 번 동점이 됐다. 2차까지 가는 '서든데스'에서 한국 양궁의 힘이 발휘됐다. 만ანი 주현정과 막내 기보배가 연달아 10점을 명중 시킨 뒤 마지막으로 사선에 선 윤옥희까지 10점 릴레이를 펼쳐 30점을 만들었다.

중국은 첫발에 10점을 쏘았지만 두 번째 장윤위의 화살이 7점에 꽂히면서 한국의 우승이 확정됐다. 침착한 승부로 중국을 제압한 주현정과 기보배는 광주를 무대로 양궁의 꿈을 키운 공사들이다. 곡성이 고향인 주현정은 두달초 6학년때 양궁을 시작해 동명여중, 광주체육고에서 활시위를 당겼다. 대표팀의 만년니지만 국가대표와는 많은 인연이 없었다. 2008년 양궁 월드컵에서 국제무대에 데뷔한 이후 지난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기만성형 선수다. 뒤늦게 이름을 알린 주현정은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윤옥희와 함께 다시 한번 1위 시상대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두툼한 배장을 앞세운 기보배는 한국 양

국가별 메달 순위 (21일 20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45	69	69
2	한국	53	46	61
3	일본	30	53	61
4	이란	9	8	14
5	홍콩	7	13	9
8	북한	5	8	12

궁의 셋별로 금부상한 선수다. 안양출신의 기보배에게 광주는 제 2의 고향. 고등학교 시절 긴 슬럼프를 겪은 기보배는 안양 성문고를 졸업하고 광주여대로 진학하면서 물이 올랐다. 졸업 후에도 광주시청 소속으로 활약하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여궁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기보배는 패조의 컨디션으로 23일 개인전에서 이번 대회 2관왕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브르 여자단체 은메달 최병철(29·화성시청)이 '효자 종목' 펜싱에서 5번째 금메달을 보냈다. 여자 펜싱 대표팀은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금화(익산시청)-김혜림(안산시청)-이리진(동의대)-이우리(전남도청)로 이뤄진 여자 대표팀은 21일 광저우 광다체육관에서 치러진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허핑 중국에 40-45로 패해 준우승을 했다. 여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김혜림은 단체전 은메달로 어렵게 2관왕의 영광을 놓쳤다.에이스 김금화가 1번 주자로 나선 한국은 이리진과 김혜림이 이어서 검을 잡고

25-19로 앞서 가며 금메달이 눈앞에 보였지만 여섯번째 경기에서 출전한 김혜림이 역전을 허용해 28-30으로 끌려간 한국은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금화가 역전을 노렸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앞서 20일 최병철은 광저우 광다체육관에서 벌어진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플뢰레 개인전 결승에서 홍콩의 정위린과 치열한 접전 끝에 15-14로 짜릿한 승리를 낚았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을 차지했던 최병철은 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이번 대회 펜싱에서 남자 사브르의 구본길(21·동의대), 남자 에페의 김원진(26·울산광역시청), 여자 플뢰레 남현희(29·성남시청), 사브르 김혜림(25·안산시청)에 이어 5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회 연속 금메달 4개를 휩쓴 한국 남녀골프 대표팀이 시상대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남자 대표팀 김민휘·이경훈·이재혁·박일환, 여자 대표팀 김지희·김현수·한정은. /연합뉴스

## 한국 골프 아시아 최강... 남녀 개인·단체 금 싹쓸이

한국 남녀 골프 대표팀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휩쓸어 2회 연속 금메달 4개를 합작했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김민휘(신성고)와 여자 대표팀 '다크호스' 김현수(예문여고)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독식해 2관왕에 오르는 경사를 맞았다. 한국은 20일 광저우 드래곤레이크 골프장(프72)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부 최종 라운드에서 김민휘가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맞바꾸며 3언더파 69타를 기록해 최종합계 15

언더파 273타로 필리핀의 루이스 미겔(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을 9타차로 꺾고 우승했다. 함께 출전한 '만형' 이경훈(한국체대)이 최종합계 3언더파 285타로 공동 4위에 올라 쉽게 동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가운데 이재혁(이포고)과 박일환(속초고)은 각각 3오버파 291타와 5오버파 293타에 그쳐 9위와 공동 12위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4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성적이 좋은 3명의 스코어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는 단

체전에서 한국 남자는 최종합계 22언더파 842타로 인도(10오버파874타)를 무려 32타차 앞서 금메달의 기쁨을 맛봤다. 여자부에서는 김현수의 활약이 빛났다. 김현수는 여자부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나눠치며 이븐파 72타를 적어내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함께 출전한 김지희(육민관고)는 최종합계 1언더파 287타로 중국의 옌진과 동타를 이룬 끝에 18번홀에서 치러진 순위 결정전에서 밀려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정은(중문고)

은 보기 5개에 버디는 1개에 그치며 4오버파 76타를 적어내 최종합계 1오버파 289타로 4위로 내려앉아 메달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자 대표팀도 3명 가운데 2명의 베스트 스코어를 합치는 단체전에서도 최종합계 16언더파 560타로 2위 중국(5언더파 571타)을 11타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때도 남녀 개인·단체전 금메달을 모조리 땀한 한국은 4년 만에 도하의 기적을 재현하며 아시아 최강의 입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 '100m 희망' 임희남 준결승 진출

이미영(31·태백시청)이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건넜다. 이미영은 21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포환던지기 결승에서 17m51을 던져 중국의 리링(19m94)과 공리자오(19m6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7m51은 이미영이 올해 작성한 개인 최고기록이다. 이미영은 이날 5차 시기까지 열린 결승에서 2차 시기에 17m51을 던져 2005년 4월과 6월에 세운 개인 최고기록(17m62) 경신 가능성을 높였으나 3차 시기에서 17m38에 머물렀고 이후 두 번은 17m를 넘기지 못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육상에서 한국은 김현섭(25·삼성전자)이 남자 경보 20km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까지 합쳐 첫날 동메달 2개를 가져갔다. 한편 남자 100m의 희망 임희남(26·광주시청·사진)과 김국영(19·안양시청)은 이날 예선에서 각 조 1위와 4위로 24명이 겨루는 준결승에 진출했다. 1~5조까지 34명이 기량을 겨룬 이날 레이스에서 임희남은 1조 3번 레인에서 뛰어 10초64를 찍고 가장 먼저 들어왔다. 개인 최

고기록(10초32)에는 0.3초 가량 뒤졌다. '10초34'의 벽에 갇혔던 한국기록을 31년 만에 깨고 10초23까지 줄여놓은 김국영은 5조에서 4번 레인에서 출발, 10초58을 찍고 4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임희남은 "컨디션이 좋기에 개인 최고기록 경신과 메달에 함께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고 이날 스타트블록 적응에 실패, 중반까지 고전했던 김국영은 "목표는 무조건 금메달"이라며 준결승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100m 준결승은 22일 오후 6시25분부터 3개 조로 나뉘어 열리고 대망의 결승 레이스는 저녁 8시30분 펼쳐진다. 임희남은 준결승 1조 3레인에, 김국영은 3조 1레인에 편다. 각조 1~2위와 나머지 선수 중 기록이 좋은 2명이 결승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